

‘방만 운영’ 공공기관 출자회사

국회예산처 운영실태 평가

나주 한국콘텐츠공제조합 영업손실 지속...자본잠식 우려 aT, 200억 투자한 중 청다오 물류센터 가동률 40% 공공기관 213명 출자회사 재취업...퇴직자 관리도 엉망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이 지속적 영업 손실로 자본 잠식이 우려되고, 한국농수산식품공사(이하 aT)가 중국 청다오에 설립한 aT물류센터의 가동률이 40.4%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23개 공공기관에서 213명의 퇴직임직원이 출자회사에 재취업하였으나, 24명에 불과한 임원에 대한 공시만 이뤄졌다.

공제조합을 설립했지만 재원 조성은 목표의 10%에 불과한 100억원에 못 미치고 있다. 이마저도 지난해 당기순이익 7억3300만원을 기록하는 등 계속되는 영업손실로 자본잠식이 예상된다. 또 영업수익의 대부분은 보증수수료 수익으로 지난해 2억3000만원에 그쳤고, 영업비용 10억6700만원은 인건비와 경비(복리후생비)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애초 계획했던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의 운영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영세조합원의 소액 출자금으로는 공제사업의 추진에 한계가 있어 국고 지원이 필요하

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 2011년에 해외 물류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0억원을 투자해 청다오aT물류유통공사를 설립하였으나 애초 계획 대비 3년이 지난 2015년에 가동을 시작하였으며, 40.4%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도 청다오 aT물류센터는 수익은 창고 임대료에 국한된 반면, 감가상각과 인건비, 경비 등을 고려할 때 매년 3억원 수준의 적자를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점이 발견됐다. 한편 한국철도공사, 한국서부발전 등 23개 공공기관에서 213명이 퇴직하거나 정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출자회사에 재취업하거나 이직했지만 이들에 대한 공시는 단 24명에 불과했다. /오광록기자 kroh@



광주은행, 수도권 27번째 점포 개점

안양지점...경인 네트워크 확충

KB금융그룹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지난 29일 오전 김한 광주은행장과 안양지점 개점식을 가졌다. 이날 개점한 안양지점은 서울 18개점을 포함한 수도권 27번째 점포로, 경인 지역 금융네트워크를 확충해 수도권 영업력 강화와 고객 편의성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 시중은행들이 서울지역 점포를 대폭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은행은 수도권 지역에 소매금융 중심의 소형 전략점포를 확대하여 수도권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광주은행의 2016년 6월말 기준 수도권 점포 여·수신은 7조8000억원으로 2014년 말 3조7000억원 대비 4조1000억

원 상당 증가했으며, 평균 누적 손익분 기점 달성 시점을 기존 3년에서 1년~1년6개월로 단축시켰다. 이는 건물 2층 이상 점포 입점 및 소규모 점포 운영으로 인한 고정비 최소화 및 소형 전략점포 위주의 소매금융 확대 전략이 성공했다는 평가다. 광주은행은 이러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2020년까지 수도권 소형 전략점포를 6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한 광주은행 은행장은 “광주은행은 중서민과 상공인을 위한 소매금융에 주력해 나가고 있으며, 이들에게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론, 수도권 지역의 풍부한 자금을 호남지역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등 지역 현안 사업들에 기운을 불어 넣는 ‘더 좋은 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빛나는 ‘형제경영’...효성 영업익 1조원 보인다

조현준 사장 중공업·조현상 부사장은 산업자재

영업이익 각각 842억·736억...분기 최대 실적

효성그룹 형제 경영이 빛을 발하고 있다. 장남인 조현준 사장은 ‘중공업’에서, 3남인 조현상 부사장은 ‘산업자재’에서 각각 분기 최대 실적을 거뒀다. 두 형제의 선전으로 효성은 대표종목인 섬유가 주춤했음에도, 2분기에 영업이익이 331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966년 창사 이래 최고 수준이다. 먼저 조현준 사장이 이끄는 중공업 부분의 성과가 빛났다. 조 사장은 중공업 부분을 미운오리새끼에서 백조로 바꿔놓았다.

이 사업 부문은 저가 추수와 제품 납기 지연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냈었다. 그러나 2014년 조 사장이 지휘를 맡으며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고객사별로 맞춤 생산을 하는 초고압 차단기·변압기 시장에서 제품 개발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품질은 보장하되 ‘돈이 되는 수주’만 하는 식으로 전략을 바꾼 것이 주효했다. 올해 2분기 중공업 부문 영업이익은



조현준 사장



조현상 부사장

842억원. 지난해 같은 분기(326억원) 대비 2.5배 늘었다.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에서 25%로 크게 올랐다. 이러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신사업에도 뛰어들었다.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급변하는 풍력·태양광 에너지를 미리 저장해 안정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전압조정시스템인 ‘스태뮴’을 수출하기 시작했다. 셋째 아들인 조현상 부사장이 이끄는 산업자재 부문 역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2분기 영업이익은 736억원으로, 전년

동기(335억원)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자동차 시장이 회복하면서 자동차용 자재 판매량이 증가한 덕분이다. 향후 시장 선점을 위해 조 부사장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그가 만든 기술 중심 영업조직인 ‘테크니컬 마케팅’은 지난해 말 기존 타이어코드 대비 강도를 10% 높인 고강도 타이어코드를 개발해 판매를 시작했다. 친환경 타이어에 들어가는 타이어코드 개발도 마쳐 현재 세계 10위권 타이어 회사들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재계 관계자는 “성공적인 형제 경영으로 전 사업부문에서 고른 실적 개선을 보여줬다”며 “이대로라면 작년에 이어 영업이익 1조원 이상의 연도별 최대 실적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보해가 지역 청년을 응원합니다” 광주시에 후원금 2천만원



깔끔하고 건강한 맛!
화순 요리전문점
샷강 다슬기 성업중!!

샷강 다슬기는 국산 자연산 다슬기로만 4시간 동안 가마솥에 우린 자연의 맛 육수로 춘달백숙, 오리백숙 등 모든 요리를 만듭니다.

다슬기의 효능 다슬기의 성질은 차고 맛은 달며 독이 없다.
 • 간염, 지방간, 간경화 등 간질환의 치료 • 숙취해소와 신경통, 시력보호 • 열독과 갈증 해소
 • 위장기능개선 • 위통과 소화불량을 치료 • 빈혈 증세 효과 •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
 • 무지방 고단백질 건강식품 • 간염과 눈의 충혈 통증을 다스리고 대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

각종모임 예약환영
 춘달백숙, 오리백숙
 1시간전 미리 예약

*다슬기 춘달백숙
 *다슬기 오리백숙
 *삼계탕·수제비·조무침
 *다슬기 영양 돌솥밥

샷강 다슬기 화순읍 안양산로 94
 ☎(061)372-8600
 H. 010-5308-7045

보해양주주(대표이사 임지선)는 2016 세계청년축제에 참여한 다양한 행사 지원 및 광주광역시와 청년들을 위한 추진 사업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후원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지난 28일 오후 광주광역시에서 주관하는 ‘2016 세계청년축제’가 아시아문화전당 일대에서 열렸다. 이날 개막식에는 광주광역시 윤장현 시장과 보해양주주 임지선 대표이사가 우리지역 청년 히어로들을 응원하기 위해 광주지역 청년을 위한 캠페인 MOU를 체결하고 젊은 청년들과 울동을 같이하며 젊음의 열기를 나누었다. 또한 보해양주는 홍보부스인 ‘민트부러더’를 무료로 운영, 젊은 참석자들에게 생수 배포(무알콜원생수)와 부채등 판촉물 전달하고, 디제잉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보해양주주(대표이사 임지선)는 2016 세계청년축제에 참여한 다양한 행사 지원 및 광주광역시와 청년들을 위한 추진 사업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후원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지난 28일 오후 광주광역시에서 주관하는 ‘2016 세계청년축제’가 아시아문화전당 일대에서 열렸다. 이날 개막식에는 광주광역시 윤장현 시장과 보해양주주 임지선 대표이사가 우리지역 청년 히어로들을 응원하기 위해 광주지역 청년을 위한 캠페인 MOU를 체결하고 젊은 청년들과 울동을 같이하며 젊음의 열기를 나누었다. 또한 보해양주는 홍보부스인 ‘민트부러더’를 무료로 운영, 젊은 참석자들에게 생수 배포(무알콜원생수)와 부채등 판촉물 전달하고, 디제잉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전국 경기전망SBHI는 지난 5월 93.5로 올해 최고치를 찍은 뒤 6월 90.1, 7월 87.9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제조업전망 SBHI는 84.6으로 전월 전망치(87.5)보다 2.9포인트 줄었고, 비제조업 전망은 88.1에서 85.4로 2.7포인트 줄었다. 항목별 전망SBHI로는 내수(84.3), 수출(83.8), 경상이익(83.1), 자금시장(83.6)이 7월 전망치보다 떨어졌고 고용 수준은 97.3으로 소폭 상승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2 5 15 18 19 23 44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714,720,917	9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1,441,628	50
3 5개 숫자일치	1,436,115	1,791
4 4개 숫자일치	50,000	87,920
5 3개 숫자일치	5,000	1,470,125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Step 1. 방수장리
 Step 2. 단열반이스카트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장점
 1/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 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2/ 건축 내외장재 패던디자인 난 엔디나외의 클라보 디자인!
 3/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4/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만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49189호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2중안벽 단열방수
 냉난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공로문화센터 옥상서공
 시공사례

상명대학교/양평군보문초/대전대학교/태백시보문초
 단성시립도서관/강화군청/인제군청/부천소방서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010-6603-0405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